

토트넘 '구원의 손' ... 손흥민 EPL 15호 골

‘골 취소→PK 골’ 사우샘프턴에 2-1 역전승
4위 첼시 승점 2점차 바짝 뒤쫓고
30세 메이슨 감독 데뷔전 승리 이끌어

손흥민(29)이 페널티킥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경신하며 토트넘 홋스퍼에 승리를 안겼다.

코치였다가 조제 모리뉴 감독 경질 뒤 감독 대행에 맡겨진 라이언 메이슨(30)은 사령탑 데뷔전에서 EPL 최연소 승리 감독이 됐다.

손흥민은 22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시즌 EPL 29라운드 사우샘프턴과 순연 경기에 선발 출전해 1-1로 팽팽하던 후반 45분 페널티킥 골을 넣었다.

이로써 토트넘 이적 뒤 두 번째 시즌이던 2016-2017시즌 넣은 14골을 넘어 자신의 EPL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새로 썼다.

2010-2011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프로로 데뷔한 손흥민의 전체 프로 경력을 놓고 봐도 이번 15골은 정규리그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이다.

올 시즌 참가한 모든 대회에서 이날까지 20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이제 한 골을 더 넣으면 2016-2017시즌 세웠던 자신의 한 시즌 공식전 최다 21골 타이 기록을 작성한다.

토트넘은 동점골을 책임진 개러스 베일과 손흥민 덕에 사우샘프턴에 2-1 역전승을 거뒀다.

토트넘은 6위(승점 53·15승 8무 10패)로 한 계단 올라섰다. 한 경기를 덜 치른 4위 첼시(승점 55)와의 격차를 승점 2로 좁혔다.

꼭 막혀있던 토트넘의 혈을 뚫은 것은 베테랑 베일과 손흥민이었다.

동점골은 후반 15분 베일의 발끝에서 나왔다. 손흥민의 백패스에 이은 모라의 슈팅이 수비를 맞고 나오자 베일이 골지역 오른쪽에서 이를 잡아 왼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침착하게 마무리, 1-1을 만들었다.

베일의 리그 6호 골이었다.



후반 30분에는 손흥민이 골망을 흔들었으나, 비디오판독(VAR) 끝에 득점이 취소됐다.

손흥민이 세르히오 레길론의 패스를 받아 골지역 정면에서 왼발 눈스톱 슈팅을 날린 것이 골대에 꽂혔으나,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앞서 달려가던 모라가 상대 수비진의 시야를 방해해 득점에 관여했다는 판정이 나왔다.

손흥민은 결국 경기 막판 행운의 페널티킥으로 개인 기록을 경신했다.

‘초짜 사령탑’ 라이언 메이슨은 축구 통계 업체 옵타에 따르면 1991년생으로 이날 생후 29년 312일을 맞은 메이슨 대행은 EPL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경기를 지휘한 감독이 됐다. 당연히 EPL 최연소 승리 감독 타이틀도 메이슨의 차지다.

EPL 출범 전 잉글랜드 1부 리그 기록을 통틀어서는 1977년 10월 킨스파크 레인저스를 지휘해 예버턴전을 치른 프랭크 시블리(생후 29년 308일) 감독 이후 메이슨이 가장 어린 감독이다.

메이슨 대행은 ‘뱃속까지 토트넘 맨’이다. 여덟 살 토트넘 유스에서 선수 경력을 시작했고 2008년 프로 데뷔도 토트넘에서 했다. 이곳저곳 임대를 많이 다녔으나, 원소속팀은 2016년까지 늘 토트넘이었다. 손흥민과도 함께 그라운드를 누빈 사이이다.

2016년 처음으로 완전히 이적해 헐 시티에서 두 시즌을 뒀던 메이슨 대행은 스물일곱 살이던 2018년 경기 중 상대 선수와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을 심하게 다친 바람에 은퇴했다.

/연합뉴스



손흥민이 22일(한국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샘프턴과 경기에서 후반 45분 페널티킥 상황에서 슈트를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메넨
“KIA 선발승,
이제 내 차례라고”



KIA 오늘 삼성과의 홈경기 선발 등판 브룩스와 원투펀치 위력 보여줄 시간

제 자리로 돌아온 선발 로테이션의 흐름을 메넨이 잇는다.

KIA 타이거즈 윌리엄스 감독은 개막과 함께 ‘4일타’이라는 강수를 뒀다. 가장 믿음직한 두 외국인 투수 브룩스와 메넨을 공격적으로 배치해 초반 분위기 싸움을 이끌겠다는 구상이었다.

양현종이 빅리그 도전을 위해 떠났고, 4-5선발 자리에도 물음표가 있었지만 만큼 윌리엄스 감독 나름의 승부수였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브룩스와 메넨이 4일타로 나선 4경기에서 KIA는 1승 3패를 기록했다.

브룩스가 4일 투수전 첫 등판에서 7.1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화력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서 1-4 역전패함으로써 패배를 안았다.

4일 쉬고 9일 NC를 상대했던 브룩스는 이 경기에서는 4.1이닝 7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6일 키움전과 11일 NC전을 책임진 메넨은 각각 5.2이닝 3실점·5이닝 4실점을 기록했다. 5이닝은

책임했지만 견고함은 떨어졌다. 6일 경기는 KIA의 연장전 승리로 끝났지만 11일 경기에서는 메넨이 패전투수가 됐다.

두산, 키움, NC를 겨냥한 4일타 전략은 수정됐고, 순리대로 5일타로 마운드가 돌아가고 있다.

14일 롯데전 등판 이후 넉넉히 휴식을 취하고 20일 LG전에 나선 브룩스는 6이닝 1피안타 2볼넷 2탈삼진 1실점(비자책점)의 피칭을 하며 선발 임무를 완수했다.

4-1의 리드 상황에서 등판을 마무리한 브룩스는 이날 경기가 KIA의 6-3 승리로 끝나면서 4번째 등판 만에 승리투수가 됐다.

이는 14경기 만에 기록된 KIA의 2021시즌 첫 선발승이기도 했다.

이제는 메넨이 원투펀치로서 역할을 해줄 시간이다.

지난 17일 SSG전에서 메넨은 6이닝 6피안타(2피홈런) 2볼넷 6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솔

로포 2개로 2실점은 했지만 세 번째 등판에서 첫 퀄리티 스타트를 끊으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메넨은 23일 안방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KBO리그 4번째 등판에 나선다.

메넨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역시 ‘한방’이다.

메넨은 앞선 SSG전에서 추신수와 한유섭에게 솔로포를 내줬다. 11일 NC와의 경기에서는 알테어와 김태군에게 각각 투런포를 허용했다.

이번에 상대해야 하는 삼성도 ‘한방’이 돌보이는 팀이다.

22일 현재 삼성은 16개의 홈런으로 NC(23개), SSG(19개)에 이어 팀홈런 3위에 올라있다.

홈런을 막고 긴 이닝을 책임지는 게 메넨에 주어진 임무다.

한편 주말 안방에서 경기하는 KIA는 홈팬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펼친다.

24일에는 ‘타이거즈 레전드 데이’가 진행된다. 타이거즈에서 9년의 우승을 지휘한 김용우 감독이 사구자로 마운드에 오르고 선수들은 ‘검빨 유니폼’으로 통하는 올드 유니폼을 입고 뛰는 등

25일에는 ‘레이디스 데이’가 마련됐다. 선수들은 새로 디자인된 검장·핑크 유니폼을 입고 뛰고, 여성팬들을 위한 선물과 할인 행사 등도 준비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대구 상대로 연승 노린다

24일 K리그1 12라운드 홈경기
전남은 부산서 상위권 굳히기

연패를 끊은 광주FC가 분위기를 이어 안방에서 연승을 노린다.

광주는 24일 오후 4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대구FC를 상대로 K리그1 2021 12라운드 홈 경기를 갖는다.

광주는 지난 11라운드 강원 원정에서 후반 43분 나온 이현도의 극적인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두며 2연패를 끊었다.

먼 원정길에서 승점 3점을 안고 돌아온 광주는 7위까지 올라섰다.

경기 내내 강원의 압박에 잘 대처한 광주는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빠른 역습으로 공격을 전개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이스의 도움까지 기록되면서 공격루트도 다양해졌다.

공격 옵션을 늘린 광주는 승리까지 이루며 연패 뒤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강원전에서 비록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펠리페의 꾸준한 활약은 광주의 든든한 힘이다.

희생적인 플레이로 강원 수비에 맞선 펠리페는 헤이스, 엄지성, 송승민 등 2선 자원들과 좋은 연계플레이를 선보였다.

펠리페를 중심으로 광주는 K리그1 2라운드 일정에 돌입한다. 광주는 앞선 1라운드 11경기에서 4승 1무 6패를 기록했다.

대구전을 시작으로 11개 팀과 재대결에 나서게 되는 광주는 중위권 유지를 위해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줘야 한다.

대구는 광주에 반가운 상대다.

광주는 지난 3라운드 대구 원정에서 무려 4골을 폭발하면서 4-1 역전승을 연출했었다.

물론 방심은 금물이다. 대구는 ‘에이스’ 세정야와 함께 에드가, 츠바사, 홍정운, 정승원 등이 부상에서 회복하면서 더 강력한 스쿼드를 구축했다. 특히 에드가는 2경기 연속골로 팀의 연승을 이었다.

또 이번 승부에 따라 두 팀의 순위도 바뀔 수 있는 만큼 광주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대구는 3승 4무 4패(승점 13)로 광주와 승점 동률을 이루고 있다. 광주가 11득점을 기록하면서, 10득점의 대구에 앞서 7위를 지키고 있다.

광주는 특유의 타이탄한 중원 압박과 협력 수비로 공격진을 봉쇄하고, 적극적인 공격으로 대구의 골문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K리그2의 전남드래곤즈는 부산으로 가서 3연승에 도전한다.



광주FC가 24일 안방에서 대구를 상대로 K리그1 2021 12라운드 경기를 갖고 연승을 노린다. 지난 20일 강원과의 경기에서 드리블하는 광주FC 헤이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전남은 24일 오후 6시 30분 부산구덕운동장에서 부산아이파크와 K리그2 2021 8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전남은 7라운드 김천상무와의 홈경기에서 김현욱의 멀티골로 2-1 승리를 거두며 2연승에 성공했다. 승점 3점을 보탠 전남은 대전하나시티즌에 이어 승점 3점차 2위까지 치고 올랐다.

부산은 현재 7위. 순위로만 보면 격차가 커보이지만 승점은 전남 12점, 부산 10점으로 단 2점차에 불과하다.

전남은 김현욱을 앞세워 상위권 굳히기에 나선다. 앞선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7라운드 MVP에 오른 김현욱은 최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공개한 ‘다이나믹 포인트’에서 7라운드 1위를 차지했다.

‘다이나믹 포인트’는 부가데이터를 토대로 개인의 활약상에 점수를 매기는 파워랭킹으로, 최근 리그에서 가장 폼이 좋은 선수를 나타내는 지표다.

전남이 물오른 김현욱을 앞세워 안방경이 버티고 있는 부산을 상대로 3연승 질주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